

건설협회-조달청 상생간담회

건설업계와 조달청이 한자리에서 상생 발전을 논의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최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 건설산업과 공공조달사업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건설업계는 조달사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적격심사낙찰제도를 비롯해 종합심사낙찰제, 일반관리비율 상한조정·간접노무비율 현실화, 기계설비·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지양 등 총 9개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오인철 회장은 "계약 이행 비효율성과 종합·전문업체 간 분쟁을 조장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물량이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건설협회 올림픽 성금 기탁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최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협회 본회(회장:유주현)와 공동으로 8,000만원 상당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